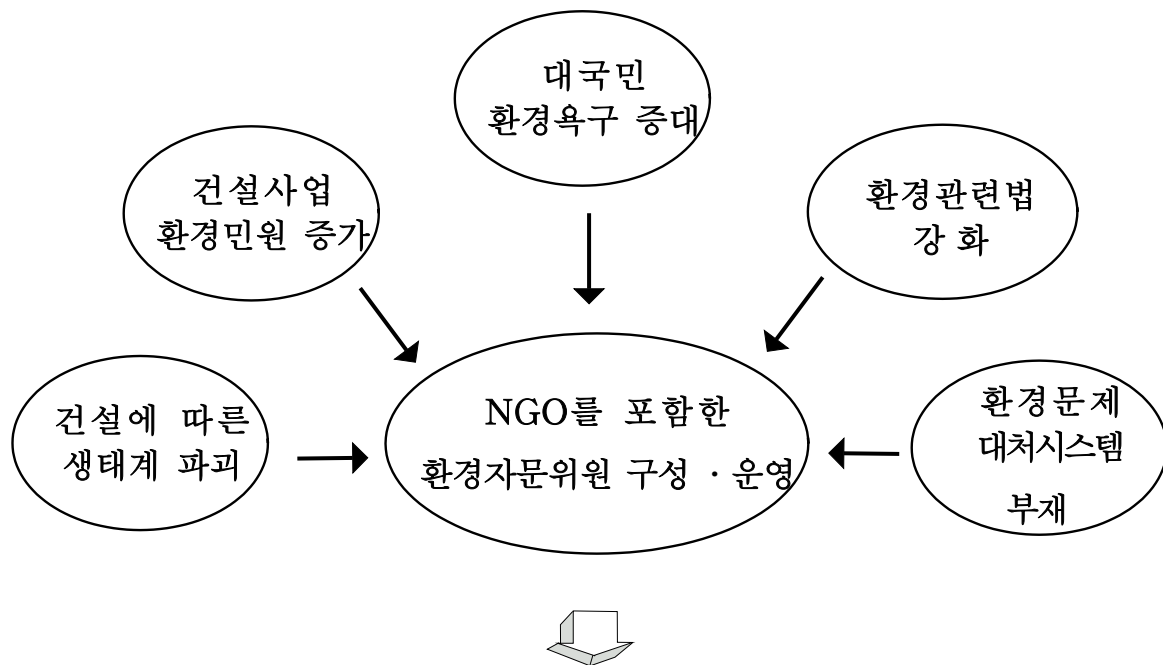


제 10 장 환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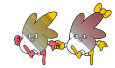
10.1 목 적

국민들의 『삶의 질』 향상과 더불어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환경보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,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친환경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학계로 이루어진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**고객참여경영**을 실현하고자 한다.

10.2 추진방향



- 환경관련 민원 최소화
- 원활한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
- 대내외 우리공사 이미지 제고



10.3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

10.3.1 자문위원회 구성

- 위 원 장 : 위원중 선출
- 위 원 : 4개 분야 15명 이내
- 간 사 : 환경관리팀장

계	시민단체	학계	전문가	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	비고
15	9	2	3	1	

10.3.2 위촉기간

- '05. 3 - '07. 3(2년)

10.3.3 외부자문위원 자격기준

- 대학 환경관련 분야 전공교수
- 환경운동가 또는 시민단체 활동중인 인사
- 환경관련 전문가 (박사 또는 기술사)

10.3.4 자문위원회 역할

- 설계 또는 건설시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토의
- 환경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
- 환경저감 대책을 위한 우수공법 자문
- 기타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10.3.5 운영방안

1단계	○ 환경관련 단체 및 외부인사 위촉
○ 자문위원(4 분야, 15명) 선정 및 위촉 ○ 기간 : '05. 1 - '05. 3	



2단계	○ 토론 및 세미나 개최
○ 환경민원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토의 ○ 환경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연구 ○ 친환경 시설 설계 반영 ○ 정기회의 : 2회/년(반기1회) ○ 특별회의 : 사안발생 필요시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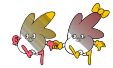
3단계	○ 건설현장 견학을 통한 공감대 형성
○ 환경친화적 현장 : 서해대교, 춘천-양양구간등 ○ 기간 : 2회/년	

10.4 '05년 추진계획

- 환경문제로 인한 노선변경구간 자문
 - 여주-양평 2공구 : 수변구역
 - 보성-광양(9공구) : 여자만
 - 양양I/C, JCT 위치 변경
- 환경시범노선에 대한 환경저감시설 자문(동홍천-양양)
 - 친환경적 자연공법 연구
 - 환경휴게소, 백두대간 통과구간 환경저감 대책
 - 고속도로 로드킬(Road Kill) 방지 대책
- 환경평가대상구간 노선 현장답사
 - 춘천-양양(동홍천-양양) 노선 등

10.5 기대효과

- 객관적인 환경성 확보로 원활한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
- 환경관리분야 관리체계의 새로운 시도로 환경의식 고취
- 사회적, 전문적 환경 공감대 형성에 따른 대국민 홍보강화



환경자문위원 현황

구 분		성 명	경 력	비 고
환경관련 시민단체	환경운동 연합	이종만	· 경기대표, 지속발전가능위원회자문위원, · 푸른경기21대표, 안양대 영문학과 교수	
		안명균	· 경기사무처장 · 경기 환경보전 공동행동 집행위원장	
		김임선	· 경기집행위원, 안양천·수리산 살리기 시민대표	
	녹색연합	서재철	· 자연생태국장, 천성산 환경평가 시민단체대표 · 백두대간 지킴이	
		윤기돈	· 녹색도시국장, 동강살리기 간사	
	녹색교통	민만기	· 사무처장 · '00~'01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반	
		하혜중	· 교통.환경팀장 · 전국 고속도로·국도 이중투자 연구수행	
	환경정의	오성규	· 사무처장,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자문위원, · 지속발전가능위원회 물·국토자문위원	
		조복현	· 공간정의국장, 시민연대 간사	
학 계	광운대	장운영	· 환경학과 교수, 환경보건안전학회 기획이사 · 국립환경연구원 토양분야 겸임교수(지하수)	
	강원도립대	이해승	· 환경학과 교수, 백두대간 지킴이 ·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	
전 문 가	한국종합 기술개발공사	이문형	· 환경영향평가협회 부회장, 환경기술사회 이사 · 고려대 환경학과 겸임교수	
	경호기술단	박화범	· 환경영향평가협회 이사, 환경기술사(수질) · 한림전문대 환경공학과 겸임교수	
	도화종합 기술공사	박선환	· 환경영향평가협회 이사, 환경기술사(대기질) · 광운대 환경학과 겸임교수	
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(KEI)		이희선	· 연구위원, 한국폐기물학회 부위원장 · 한양대 환경대학원 겸임교수	





위촉장 수여식



사장님 인사말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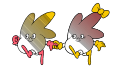
위촉장 수여식후 사장님과 기념촬영

환경시범노선 현장자문 사례

1. 자문건명 : 춘천~양양간 고속도로 (동홍천~양양간) 환경자문
2. 자문기간 : 2005. 6. 29.(수) ~ 6. 30.(목)
3. 자문위원 : 우리공사 환경자문위원
4. 자문방법 : 현장답사후 의견서 서면 제출
(환경자문위원 15명 중, 12명 현장답사, 11명 의견제출)
5. 자문결과
 - 1) 지역균형발전 기여효과

자문결과 요약

- 고속도로보다는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(녹색연합, 윤기돈)
- 통행시간 단축으로 1일 생활권이 되므로, 지역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(녹색교통, 하혜중)
- 춘천은 단지 경유지, 양양·속초는 일일생활권으로 숙박을 하지 않게 됨으로 지역발전에 역효과 가져올 수 있음, 고속도로 건설이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(환경정의, 조복현)
- 국토균형 발전 및 영동·영서 차별 감소를 위하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의 용역중지를 해제하여 도로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함 (환경운동연합, 이종만)
- 강원 전도민의 숙원과제로 기여효과 충분히 기대 (강원도립대, 이해승)
- 강원도지역의 화합 및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 (경호, 박화범)
- 각 지자체의 현재 진행중인 계획 및 장래개발계획을 포함하여 금회 도로 계획에 검토·반영 할 것 (환경운동연합, 김임선)
-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, IC설계를 충분히 반영할 것 (광운대, 장운영)
- 강원도 영동,영서의 지역통합에 결정적 기여 (한국종합, 이문형)
- 지역 균형발전에 상당부분 기여 (KEI, 이희선)
- 영동·영서 정서갈등 극복 및 영동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소통에 기여 (도화, 박선환)



2) 장대터널 시공,유지관리시 문제점 및 대책 (매연, 지하수 변이 등)

자문결과 요약

- 터널사이 계곡부 방풍망 필요, 터널내 NOx 처리대책 강구, 인제터널 환기탑 설치시 백두대간 훼손우려, 환기탑 운영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에 따른 주변 식생영향 검토 필요 (도화, 박선환)
- 장대터널 운전시 시각적 안전의 문제, 공사과정중 백두대간 훼손우려, 터널 입출구부 대기질 피해 우려, 굴착공사중 지하수 변화 (환경정의, 조복현)
- 수직갱 공사 및 공사시 진입도로에 의한 환경훼손 예상, 장대터널 운전자를 위한 주의환기 이벤트 필요, 터널진입부 1~2Km 전방에서 터널내 지체 현상을 사전예상하는 관리시스템 필요, 터널부에 지표조사 및 탄성파탐사를 실시하여 방수·지반 보강대책 시행 (한국종합, 이문형)
- 장대터널 수직구 시공에 따른 산정상부 훼손대책, 대피통로 및 터널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분명, 터널에서 밖으로 나올 때 눈분심현상에 대한 대책, 터널입구에 장대터널에 대한 주의점등을 표지판으로 홍보, 터널 들어가기전 속도저감 시설필요 (녹색교통, 하혜중)
- 장대터널 운전시 졸음, 지루함을 고려하여 조명변화, 환경변화, 굴곡 등을 실시하여 적당한 긴장감 유지 요망, 화재대비 비상로 확보 (강원도립대, 이해승)
- 장대터널내 충분한 이면구간 설치필요, 매연 배출시설은 수세식 방식과 필터방식을 복합한 시설 바람직, 지하수 재순환 시설 고려 (광운대, 장운영)
- 터널발생 사토처리 대책 및 발파시 소음·진동 대책, 장대터널 주행사 운전자 주의환기 대책 필요 (녹색연합, 윤기돈)
- 원활한 환기시스템, 대피연락갱, 비상차량의 유턴구간 및 비상주차공간 필요 (환경운동연합 김임선)
- 터널공사시 충분한 용량을 가진 처리시설 필요 (경호, 박화범)
- 터널의 최고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성, 지하수처리, 매연처리, 전기공급 등에 대한 대책마련 (환경운동연합, 이종만)
- 10Km에 이르는 장대터널은 국내 설치예가 없으므로,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후 시공계획 수립하고, 외국의 장대터널 저감방안도 충분히 검토 (KEI, 이희선)



3) 고속국도 인접지역에 대한 국도의 중복투자

자문결과 요약

- 고속도로가 뚫린 구간에 획일적으로 국도를 4차선 고규격화하는 것은 **제검토** 해야함, 이를 위해 도공, 건교부, 지방국토관리청,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설립 필요 (녹색연합, 윤기돈)
- 동홍천-양양 구간의 타당성에 대해 **주변 국도 및 철도 투자계획과 함께 면밀히 검토**해야 함 (녹색교통, 하혜중)
- 44번국도 확장공사중, **서울-춘천 고속도로 만으로 소통가능**, 이미 영동방향 도로는 상당히 많음 (#44, 46, 56, 6, 42, 미시령통과 지방도) (환경정의, 조복현)
- 본 사업 진행구간의 **국도 중복성 문제는 크지 않으며**, 오히려 기존 국도와 연계성을 살려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에 기여 (광운대, 장운영)
- 영동지방과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고속국도는 영동고속국도가 유일, 일반국도 충분치 않음.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할 때, **본 고속국도 반드시 필요** (경호, 박화범)
- 고속도로는 물류 및 여객수송의 신속함, 순간대량 수송등의 특성이 있으므로, **국도와는 그 기능이 크게다름**. 관할 지자체의 상위개발 계획, 원주-강릉 철도계획 등도 검토반영 해야함 (환경운동연합, 김임선)
-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은 국토관리청, 도로공사, 인접 지자체 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 (강원도립대, 이해승)
- 본 노선과 기존 국도의 확장 및 활용등의 다양한 대안을 경제적, 환경적으로 검토하여 절대적 타당성을 제시해야함 (한국종합, 이문형)
- 기존 국도를 두고, 새로운 도로 건설시 자연환경 훼손을 고려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충분한 필요성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(KEI, 이희선)
- 고속도로는 지역간 연결만이 목적이 아닌 산업물류 수송의 대동맥 역할을 하므로, 기존 국도 확장사업과는 별개로 남북, 동서 물류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**교두보 확보를 위해 꼭 필요** (도화, 박선환)
- 영동으로 통하는 기존도로들이 있으나, 여름휴가철이 주말에는 정체가 심해서 그 이상의 도로건설 요구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(환경운동연합, 이종만)

4) 기타

자문결과 요약

- 생태통로 적극 권장, 휴게소 공간 여유있게 조성, 휴게소와 연계하여 생태공원 및 생태박물관 조성 필요 (환경운동연합, 이종만)



현장도착 전 노선개요 설명 1



현장도착 전 노선개요 설명 2



내촌IC 현장답사



양양JCT 현장답사 1



양양JCT 현장답사 2



행치고개에서 노선대 전망



워크숍 개회



워크숍 진행



행치고개에서 단체사진



모든 일정을 마치며...